

# 세계김치연구소, 10년 만에 존폐 위기

### 식품연구소와 통폐합 논의...김치산업 차질 우려 효천지구 '제2의 김치타운' 추진중인 광주시 '난감'

광주시에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 전 야심차게 유치한 세계김치연구소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시너지 효과를 노려 '제2의 김치타운'을 추진 중인 광주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김치연구소의 식품연구소 통폐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치연구소의 필요성이 미미하고 연구성과 또한 부족해 2013년과 2016년 기관평가 결과 잇따라 '미흡' 판정을 받은 데다가 발효 연구로 통합해 시너지를 유도하고 행정 효율성 역시 높여보자는 취지에서다.

2016년과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효연구소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온 점도 통합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김치연구소는 핵심 연구인력이 퇴사하거나

기관장의 장기간 공석 등이 이어지면서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소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직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이거초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반대 의견서까지 전달하는가 하면 광주시 역시 '기관 존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통폐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치연구소 노조는 전날 통합 반대 집회를 열어 "정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통합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소장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정부 출연기관이보니 광주시로서는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핵심 관련 기관의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독립성과 자율성 상실로 인한 김치 상징성을 상실할뿐더러 광주시가 11대 대표산업으로 육성중



인 김치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김치산업의 거점으로 세계김치연구소 인근에 2010년 김치타운을 개관했고, 광주세계김치축제도 1994년 시작돼 올해로 27년간 진행해왔다.

그동안 김치타운 조성에 350억원, 김치축제에 210억원을 투입했고, 김치복합테마파크 조성도 김치미생물연구소 설립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남구 효천1지구에 2만1317㎡(6448평) 규모의 김치타운 2차 예정 부지도 매입한 상태다.

김치업계에서는 통폐합이 김치 연구분야 축소와 연구의 지속성 저하에 따른 사업 타격을 염려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치연구소가 김치타운 기능과 연계해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존치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중"이라며 "김치산업 발전과 김치연구소 유지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 의견서도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 동구, 조대장미거리·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

광주 동구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조대장미거리', '남광주시장' 등 2개소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문화적 콘텐츠 개발 ▲대표 상품 개발 ▲디자인 집적 등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상권의 특성을 지닌 조대장미거리는 향후 2년간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상인 조직력 강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링 ▲장미 테마 벽화 골목길 조성 ▲주요의 박물관 조성 ▲조대 미대와 연계한 창업 체험 공간 조성 ▲리마인드 스퀘어 점포 발굴 사업 등이 진행된다.

## 서구, 제1회 청년의 날 기념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 서구가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서구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한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인 '청년의 날'은 청년발전 및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 등의 참여기구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와 청년 중심의 정책 실현에 힘써왔다.

## 남구,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 '4억 규모' 설계 공모

광주 남구가 마을간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설계 공모에 나섰다.

남구는 17일 "공공기관 시설로서의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건축 설계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3억9,780만원 규모의 건축 설계 프로젝트 공모에 많은 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 참여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해 관련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로, 관련법에 근거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북구, 추석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광주 북구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북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북구는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온택트 설명회 열어

17일 광주 광산구가 광산구공활동지원센터에서 온(ON)택트 방식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자치회 시행 9개 동의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마을계획형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계·선정하기 위한 발표와 심사 자리.

이날 발표된 사업은 우산동의 'LED벽화길 활성화', 하남동의 '골목상권 맛집 지도 제작' 등 19개 사업으로 시민 일상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

행사는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한 발표자의 사업 소개를 듣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온라인으로 묻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과정은 이날 광산구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임택기자

## “추석 앞둔 주말 고비”...1주일 안정 ‘광주 코로나’ 20일 2단계 조정 검토

### 지난 11일부터 안정세 유지 감염재생산지수 0.45까지 ↓

코로나19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는 추석을 앞둔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감염 확진자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 동안 3명 이내로 발생하면서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사람수인 감염재생산지수가 0.45까지 낮아졌다.

지난 10일 준3단계 유지 방역조치 연장 발표 당시 1.01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한인 20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집합금지 대상의 조정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는 어제 국내 확진자가 145명 발생하면서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추석을 앞둔 이번 주말이 고비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처럼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당국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추석 전에 감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광주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85명으로 늘었다.

광주 485번으로 분류된 A씨는 남구 월산동 거주자이며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484번과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씨를 상대로 동선과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222억원 확보 '전국 최다'

### 목포·여수·나주 등 14개 시·군 15개 사업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15개 사업에 222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전국 최다 금액으로, 총 1566억원 중 14.2%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일정구역 내 주택·건물·공공시설 등

모든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수요에 맞춰 융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비용의 8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는 자부담으로 주민 선호도가 높다.

앞으로 사업비 443억원(국비 222억

원, 지방비 160억원, 자부담 61억원)을 들여 주택, 상가 등 총 4719개소 건축물에 태양광 1만8725kW, 태양열 4863㎡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3kW)를 설치하면, 월간 전력사용량이 350kWh(정도(6만5000원))가 절감돼 연간 62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비롯 3342kg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시·도에서

신청한 126개 사업에 대해 공개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14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전남도는 목포·여수·나주 등 14개 시·군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순철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정부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 준비와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성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진정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합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1배

240,833원

50위

1.7배

125,531원

40위

2.1배

79,147원

30위

2.7배

48,103원

20위

5.3배

26,697원

10위

← 고소득층      저소득층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